

사회

정재훈 남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방화 추정 화재... 서류 도난

경찰, 지지자 명부·공천 신청서 등 행방 수사

정후보 측 "시민배심원제 우려한 선거 테러"

정재훈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정 후보의 지지자 명부 등 선거와 관련된 각종 서류들이 사라졌다.

지난 13일 새벽 4시 40분께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정재훈 선거사무실 앞 쓰레기통과 플레카드에서 불이 나 5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진화했다.

이 사무실에는 누군가가 침입, 정 후보를 지지하는 2천500명의 명단이 담긴 서류를 가져갔다. 또 15~16일 공천신청을 위해 준비해둔 당원 25명의 추천이 담긴 '당원 추천인 명단'과 공천 신청서 등 A4용지 50매 분량의 서류도 없어졌다.

또 유리로 된 사무실의 출입문은 발로 찬 흔적과 함께 잠금장치가 파손돼 열려있었으며, 115㎡ 크기의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4대와 책, 서류 등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건물 1층 출입구에 붙여진 후보자 사무실 간판도 뜯겨져 있었으며, 대형 현수막(가로 12m, 세로 9m)을 고정하기 위해 5층 옥상에 묶어 둔 노끈 가운데 일부도 잘려 나간 상태였다.

경찰은 불이 쓰레기통과 플레카드 등 2곳에서 발생한 점을 들어 방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선거에 필요한 서류들이 집중적으로 사라진 점을 중시, 선거운동에 방해하려는 개인이나 단체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중이다. 다만 선거사무실 5층 옥상에서 신경안정제 종류의 약이 발견된 점을 감안해 정신질환자나 부랑인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재훈 후보 측은 사고 직후 보도 자료를 통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어떠한 속단도 어렵지만 남구가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선거구로 결정되면서 정 후보가 예전보다 유리해진 상황이 사실이다"면서 "이 같은 선거 여건 변화와 각종 선거 관련 서류가 사라진 만큼 선거 테러일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히 신속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새벽 정재훈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앞 통로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쓰레기통과 플레카드 등을 태웠다.

〈광주남부소방서 제공〉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난 13일 광주 지산유원지에서 리프트와 쇠줄을 잇는 고정 연결장치가 풀리면서 리프트끼리 부딪쳐 노인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왼쪽 아래는 리프트와 쇠줄을 고정연결하는 장치.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리프트카 추돌 '날벼락'

지산유원지서 연결장치 풀려... 노인 2명 중상

광주시 동구 지산유원지에 설치된 리프트카 연결장치가 운행도중 풀리는 바람에 노인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산유원지 리프트카는 설치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된데다 매년 실시하는 안전점검이 샘플에 대한 조사만을 하도록 규정돼 있어 사고위험이 상존해 왔다.

◇사고발생=13일 오전 11시40분께 광주시 동구 지산유원지 팔각정에 산 아래로 내려오던 리프트 1기가 앞서가던 리프트를 뒤에서 추돌했다. 이 사고로 뒤편 리프트에 타고 있던 차모(68·완도군 완도읍)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중태에 빠지고, 승승차 운모(72)씨는 치아 10개가 빠지는 등 부상을 입고 조선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차씨 등은 이날 오전 산악회 회원들과 무등산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사고 반복, 경찰 수사=지산유원지 리프트카는 최근 3년간 안전사고가 매년 1건씩 발생하는 등 사

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이번 사고는 탑승자 부주의가 아닌, 정기 및 일 상점검 부실이 불러온 사고라는 점에서 이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해 2월과 2008년 8월에는 탑승자들이 3m 아래로 추락해 부상을 입었으며, 지난 2004년에도 탑승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경찰은 사업자 측이 매일 실시해야 할 일상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한편, 1978년 4월부터 운행된 지산유원지 리프트는 1천490m 길이의 삭도에 리프트 66기가 10m 간격으로 팔각정과 무등파크호텔을 오가고 있으며 주말과 휴일에는 하루 수십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부실한 안전관리=이번 사고는 사업자 측의 안전 관리 소홀이 주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해양부의 '안전고시'가 리프트 시설의 연결장치에 대한 '전수점검'이 아닌, '임의추출 방식'으로 돼있는 점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3월 지산유원지 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 당시 전체 리프트 66기 가운데 일부만 임의 추출 방식으로 연결장치를 분해·검사했을 뿐이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한편, 1978년 4월부터 운행된 지산유원지 리프트는 1천490m 길이의 삭도에 리프트 66기가 10m 간격으로 팔각정과 무등파크호텔을 오가고 있으며 주말과 휴일에는 하루 수십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강진 성화대, 교육용 골프연습장

일반인들 대상으로 돈벌이 '말뚝'

강진 성화대학이 교육용 목적으로 건립한 골프연습장을 사실상 일반인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뚝이 일고 있다.

14일 성화대학과 주민 등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 2003년 골프학과를 신

설하고 3년 뒤 대학 건물 뒤편에 면적 6천900㎡, 비거리 350m, 48타석, 4층 규모의 대형 골프연습장을 건립했다. 이 대학은 골프인재 육성을 위한 시설로 교비 78억원을 투입했다며 교과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관계자는 "지역민의 평생교육 욕구 수용을 위해 평생교육원 화원에 한해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료는 최소 실비 차원에서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비식을 마치고 내려온 임씨를 보고 10여m 뒤따라가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노려 손지갑을 훔친 뒤 200m 떨어진 곳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던 중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걸렸다.

◇김씨는 다비식을 마치고 내려온 임씨를 보고 10여m 뒤따라가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노려 손지갑을 훔친 뒤 200m 떨어진 곳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던 중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걸렸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l@

나원침 (9061) 김종두



장흥 주택서 불 70대 질식사

지난 13일 오후 7시께 장흥군 유치면 신흥리에 사는 문모(74)씨의 목조로 된 1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문씨가 연기에 질식사 숨졌다. 이날 불은 내부 49.5㎡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41.7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아궁이의 불씨가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ykjm@

법정스님 다비식장에 원정 소매치기

14일 법정스님의 다비식장에서 소매치기를 한 김모(35·대전시 중구)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정오께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송광사 내 다비식장 입구에서 신도 임모(여·35·순천시 덕림동)씨의 현금 2천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손지갑을 몰래 가져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소매치기를 한 혐의.

◇김씨는 다비식을 마치고 내려온 임씨를 보고 10여m 뒤따라가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노려 손지갑을 훔친 뒤 200m 떨어진 곳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던 중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걸렸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ykjm@

"정신 차려보니 죽어 있었다"

김길태, 이양 살해 자백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김길태(33)가 지난 10일 경찰에 붙잡힌 지 5일 만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14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이모(13)양의 납치 살해 피의자 김길태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양이 죽어 있었다'고 말하는 등 범행 일부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검거 이후 5일간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졸골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이날 거짓말타지기와 뇌파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경찰의 추궁에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이양 살해장소로 추정하는 장소와 이양의 집 안방 관련 정보를 김길태가 알고 있다는 거짓말타지기와 뇌파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김씨는 이날 거짓말타지기 조사에서 경찰이 이양의 사망 추정장소 1곳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아느냐"고 묻자 "모른다"고 답했지만 거짓말타지기에는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오토바이·승용차 충돌

50대 숨지고 1명 부상

14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르노삼성자동차 판매장 앞 사거리에서 황모(58·광주 북구 임동)씨가 몰던 125cc 오토바이와 이모(54·북구 누문동)씨가 운전하던 08터31××호 렉스턴 승용차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황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중생(55)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황씨 남편은 사고 현장에서 50m 떨어진 광주의 한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이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PEET / MEET / DEET 전문학원

[약학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MDPass 의학원 출신이 아니라면 합격은 어렵다" 이 한마디를 위해...

Advertisement for MDPass Medical Academy with course details for PEET, MEET, and DEET programs, including exam dates and fees.

MDPass Medical Academy contact information: 광주 263-5453, 430-2200, 전주 255-9119, mdpass.co.kr